

##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I )\*

이 신 숙<sup>†</sup>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 A Study of Marital Satisfaction According to Sex-role Attitude for the Elderly Women

Shin Sook Lee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al between elderly women's sex-role attitude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was surveyed 186 elderly women living in Kwangju and Chonnam.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OVA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

First, The total points of the elderly women's sex-role attitude score was 16.4, which was represented mixed trends of traditional and modern. And the total points of the elderly women's marital satisfaction score was 31.6, which was higher than the median 30.

Second, Elderly women's sex-role attitude score was meaningfully different according to education level, health state, economic state. And elderly women's marital satisfaction score was meaningfully different according to social activity, economic state, health state, education level, age.

Third, A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highest influencing variable on their marital satisfaction was the social activity, economic state, education level. All of them explained 19% of their marital satisfaction. (*Korean J Human Ecology 1(2):48-60, 1998*)

**KEY WORDS** : marital satisfaction, sex-role attitude, elderly women

---

\*이 논문은 '98학년도 순천대학교 공모과제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sup>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Suncheon National Univ.,  
315, meagok-dong, Suncheon, Chonnam, 540-742, Korea  
Tel : 0661-750-3670, Fax : 0661-750-3670  
E-Mail : lsi@sunchon.suncheon.ac.kr

## 1. 서론

영양공급의 호전, 의학의 발달 등 높은 생활 수준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95년 현재 남자가 69.5세, 여자가 77.4세로 나타나 여자의 평균수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여자노인의 상대적 증가는 노인의 평균수명 연장과 더불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수명의 연장은 인생주기 상 노년기의 확대를 가져오며 결국 자녀 진수후 노부부만이 남게 되는 빈둥우리기 또는 노인 단독가구의 보편화를 가져온다. 더구나 의식의 전환으로 인하여 노부모들이 자녀와의 동거보다는 별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도시화로 인한 여러 여건 상 노부부 독립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노부부가 단독으로 생활하는 가족유형이 일반적인 노년기의 가족형태가 되고 있다.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었다. 그것은 한국가족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족관계는 부자관계였으며 부부관계는 부자관계를 위한 부차적인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의 부부적응에 대한 언급은 거의 금기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자는 대를 이을 남아를 출산하는 의무를 갖고 결혼생활을 시작하였기에 언제나 남자에게 종속된 관계를 맺어야 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직계가족의 경우 생활주기가 복선으로 중복되므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기에 더욱이 관심이 적었다(서병숙, 1991).

그러나 노년기가 길어지는 생활주기의 변화, 노부부 독립가구의 증가, 결혼생활에 대한 의미 부여 등으로 인하여 노년기의 부부관계의 안정

은 노인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노후 가정생활시 안정과 직결되는 노부부의 결혼 적응에 관해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Bowen, 1989 ; Bowen & Orthner, 1983 ; Lee, 1988).

현대사회에서 남녀의 성역할은 점차 역할구분이 혼미해져 가지만 한 개인의 인생주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Hefner, Rebecca, Oleshan-sky, 1975) 노년기에 이르면 노부부는 성역할전환을 가져와 남성은 여성다워지며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다워지는 양성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러한 노년기에서의 성역할의 변화는 개성과 인지, 선택적인 강화, 모방, 동일시 그리고 삶의 상황에서 변화되는 요구에 대한 반응 때문인데 이러한 성역할의 변화는 가정내 역할분담에 익숙하였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같이 노년기의 부부관계 안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할전환'이나 '역할 변화'에 서로 잘 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노년기에는 한쪽 배우자 또는 쌍방이 은퇴하게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재들입'의 문제를 겪는다. 이러한 접촉의 증가는 관계의 심화를 가져오거나 강요된 친밀감에서 오는 갈등을 초래하여(김태현, 1994) 새로운 형태의 부부간의 적응문제가 대두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노년을 맞이 전에 헤어져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싶다는 황혼이혼이 주로 여성에 의하여 제기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노년기의 부부관계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조화로운 부부간의 적응은 개인의 만족감과 자아통합감을 갖게하여 노인의 생활만족과 직결되는 중요성을 갖는다. 종래의 연구들(서병숙, 1991 ; Lee, 1977)에 의하면 노년기의 결혼만족은 결혼 초기의 적응, 부부간의 성역할 분담이나 태도, 생활주기등에 의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부부 양자간의 성역할태도의 일치 여부에 따른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가 주종을 이루며(서동인, 1985 ; 최규련, 1984 ; Bowen & Orthner, 1983 ; Nordlund, 1978 ; Scanzoni, 1975) 배우자 일방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다. 더구나 노년기에 경험하는 성역할 변화가 결혼만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요인을 알아보고 특히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둘째,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는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셋째,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과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여자노인의 특성

노인을 규정하는 개념은 그 노인이 처하여 있는 사회·문화적 및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특수한 성격을 갖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서병숙, 1991) 실제 많은 연구에서는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스웨덴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년과 퇴직을 기준으로 하여 60세 이상을 노인으

로 여기고 있다. 한국갤럽조사 연구소의 조사(1984)에서도 45%의 응답자가 60세를 노령선이라 응답하고 있어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노령선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여성의 경우 노성(老性) 자각이 남성보다 빠르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자노인에 대한 개념은 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같이 여성들의 노성자각이 빠른 이유는 첫째, 여성 중년기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특수한 문제로서 폐경기의 정후가 영향을 미친다는 점, 둘째, 주부권을 며느리에게 인계하고 시모나 조모의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며 셋째, 폐경기 이후 성적욕구 내지 활동의 급속한 감퇴로 인해 부부생활이 소홀해 진다는 점을 들 수 있다(조옥희, 1991). 그리고 여자노인의 평균수명은 남자노인보다 6~8년이 길고 여성의 재혼을 금기시하는 문화적 이념으로 여자노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다. 즉 여자노인은 배우자를 상실하고 홀로 남아 오래 사는 경향이 있고 남자노인보다 직업없이 더 살 확률이 높아 긴 노인생활을 보내면서 그 삶의 만족도는 남자노인보다 낮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이동원, 1978). 그리고 평생을 남편과 자식에게 희생과 봉사로서 살아오면서 한사람의 인간으로서가 아닌 남자의 부속물로 오직 의무만 강요되었지 자신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대체로 결혼생활의 만족이 남자보다 낮다. 또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하여 자식(특히 아들)에게 정성을 다 하나 자녀의 결혼으로 인하여 상실감과 허전감이 생기게 되고 노후에는 고부갈등으로 인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며 젊은 여성들의 교육기회 증가로 며느리에 비해 여자노인은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사회·경제 체계의 변화로 가사, 육아 방식에 변화를 가져와 가정의 주도권이 자녀세대로 옮겨짐에 따라 역할상실을 경험한다. 그리고 여성

의 역할이 가정내 역할로만 한정되었기에 사회 활동에 종사한 일이 적었던 만큼 여자노인의 생활고는 남자노인보다 훨씬 심하며 따라서 가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대화망으로부터 소외 당하는 심리적 고통까지 안게 된다(조옥희, 1991).

## 2. 성역할태도의 개념과 관련연구

성역할이란 일반적으로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특징지워질 수 있는 행동양식, 태도, 가치 및 인성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역할은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고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인류학자들은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하여 남성적 인성의 특질을 도구적 역할에, 여성적 인성의 특질을 표현적 역할에 근거하여 속성을 파악한 반면 사회학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Osmond와 Martin(1975)은 성역할 태도를 2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였는데 첫번째는 평등-불평등(the equality versus the inequality continuum)의 개념으로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개념과 여성은 가정에 속해 있어야 한다는 성차별적 태도 개념이다. 두번째는 성역할 구분개념(differentiation and typing of social roles continuum)으로서 남편과 부인의 역할을 양극으로 분리시키면 전통적 태도이고 역할내용을 성에 고정시키지 않고 융통성을 두어 함께 수행하는 태도를 지향하면 근대적 태도로 보는 개념이다.

한편 Parsons, Johnson, Bakon은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은 도구지향적이며 기능적인 지향과 관련되어 있고 여성은 역할은 친화적이며 표현 지향적인 것과 관련되어 자기 자신과 다른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으로 특징짓고 있다. 반면에 근대적인 개념은 한 개인안에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지닐 가능성을 함축하며 더불어 도구적 특성과 표현적 특성을 함께 갖게 되며 기능적·친화적 특성을 함께 갖게됨을 내포한다. 따라서 성유형화된 개인보다는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지닌 개인이 적응력이 뛰어나고 심리적으로 건강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성역할은 생물학적 요인, 사회적 압력, 역사적 배경의 제요인에 따라 복합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전 생애에 걸쳐 고정된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Atchley, 1976 ; Gutman, 1976 ; Neugarten & Dantan, 1973 ; Riegel, 1973)

Jung(1933)에 의하면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성'과 '남성성'의 두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나 개인이 속한 문화의 사회화 과정에서 여성은 남성다움이 억압되고 남성은 여성다움이 억압된 결과로 중년기 이후에 가서야 지금까지 자기에게 억제되어서 표현되지 않았던 행동 특징들을 표현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젊었을 때 보이던 남녀의 큰 성차가 줄어들어 '양성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장 엄격히 구분지어서 행동하는 시기는 부모노릇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있는 중·장년기이며 노년기에 들어서면 남녀의 성역할 차이는 줄어들게 된다(김태현, 1994 ; Gutman, 1976). Hefner와 그의 동료들(1975)에 의하면 전 생애동안 사람들은 미분화된 성역할에서 양극화된 역할로 그리고 다시 성을 초월하여 남성적·여성적 역할을 통합시키는 단계로 발달되어 간다고 하였다(김태현·유은희, 1987에서 재인용). Gutman(1976)도 남성은 젊었을 때에는 능동적인 지배(master)의 경향이 있지만 중년에 들어서면 좀 더 수동적

인 순응(accomodation)적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년기에서의 성역할의 변화를 Sinnott (1982)는 인성의 재조직과 활동의 변화라는 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Bem(1975)도 성숙한 사람의 기본적인 발달작업으로 생각하는 통합의 과정으로 보았다.

많은 연구들(서동인, 1985; 이정연, 1982; 이형실·옥선화, 1985; 최규련, 1984)은 여성의 경우보다 남성의 성역할 태도가 더 전통적임을 보고하고 있다. 그 이유를 Scanzoni는 여성은 남성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특권과 이윤을 적게 갖고 있는 종속집단으로서 현상유지에 반대하며 변화를 구하려고 하나 남성은 전통적인 역할구조에 더욱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태도를 더 고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성역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녀 모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근대적인 성역할을 지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박숙자, 1978; 이미숙, 1985; 최규련, 1984; Brogan & Kutner, 1974; Scanzoni & Fox, 1980)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더 근대적이라는 주장(박태온, 1983; 최규련, 1984; Tomeh, 1978)이 지배적이나 이정연(1982)은 가계소득과 성역할 태도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연령에 있어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평등주의적이며 근대적인 태도를 지닌다(기승주, 1988; 이정연, 1982; 최규련, 1984; Albrech, 1979; Brogan & Kutner, 1976; Tohmeh, 1978). 이와 같이 여러 연구를 통해 개인이 갖는 성역할 태도는 전 생애에 걸쳐 그리고 여러 변인에 의하여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결혼만족도의 개념과 관련연구

결혼의 질의 하위개념으로 사용하는 결혼만

족도는 결혼행복이나 부부적응의 개념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결혼만족에 대해 Burgess와 그의 동료들은 부부가 결혼생활의 주된 문제에 관해 의견일치를 보아 조화를 이룬 상태라 하였고(고현선, 1994에서 재인용) 결혼만족도에 대해 Bownan(1970)은 결혼생활의 실제와 기대간의 일치에서 오는 개인의 관점에 따른 주관적 정도라 하였다.

부부간의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는 Hamilton, Burgess, Cottrell, Terman 등에 의하여 연구기반이 확립되었고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성역할 태도, 의사소통, 역할 등의 변수와의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양현아, 1986; 정용재, 1985; 조성옥·신효식, 1987)은 부부 간의 적응에 있어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가 있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결혼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지위와 부부적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고소득층에서의 결혼은 안정성을 지니기 때문에 남편의 수입과 직위에 따라 만족도는 증대되어 사회경제적 지위는 결혼만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김명자, 1985; 유영주, 1979).

부부적응과 교육수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적관계로 나타난 연구결과(김명자, 1985; 박태온, 1983; 최규련, 1984)와 관련이 없게 나타난 연구결과(유영주, 1979)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 가족생활주기에 있어서는 결혼초기에 가장 높다가 그 후 계속 낮아진다는 연구(Hicks & Platt, 1970; Peterson & Payne, 1975)와 탈부모기에 다시 회복한다는 연구(유영주, 1991; Pineo, 1961; Rollins & Cannon, 1974)들이 있어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후자를 지지하는 이론들이 우세

하다.

노년기에 있어서의 부부적응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노년기에는 바쁘게 살아 온 지난날과는 달리 서로가 육체적으로 약해지고 생활세계가 축소되어 가며 활동력이 감소되어 가기 때문에 이 시기의 부부 간의 적응은 새롭게 나타난다(김태현, 1994). 그리고 노년기의 주된 생활 장소는 남녀 모두 바깥에 따라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하게 되고 따라서 노부부 간의 대화시간이 많이 된다. 이처럼 많아지는 대화시간을 보다 활발하게 전개시키는 노력이 노년기의 부부 적응에서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노력으로 서병숙(1991)은 공통의 화제를 가질 것을 제안하고 있다.

#### 4. 여자노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Neugarten(1968), Sinnot(1982)는 노년기에서의 양성적인 성역할로의 변화를 논하면서 노인들이 중년기의 성인보다 더 수용적임을 보고하였다. 특히 여성은 남성성의 특징인 지배적인 표출에 대해, 그리고 남성들은 여성들의 특징인 정서적 욕구의 표출에 보다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생후반의 단계를 Jung은 '인격의 완성과 자기 발전의 시기'라고 명명하고 심리적 양성성의 통합된 성역할을 지닌 사람이 성유형화된 사람보다 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Bem, 1975; Sinnot, 1982). 일반적으로 성유형화된 사람은 자신이 갖는 남성성 또는 여성성의 개념에 일치하기 위하여 행동하나 양성성의 성역할의 태도를 지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관계없이 상황에 반응하여 다양한 자원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융통성 있게 적응해 나가게 된다. 성역할 유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도 적응의 개념과 일치시켜 볼 때

정적관계로서 노년기에는 양성적인 노인의 정신건강 수준이 가장 높았다(Sinnot, 1982). Lowenthal 등(1975)의 연구에서도 여성성이 높은 여자노인들이 생활의 부적응과 자기비판의 성향을 보였으며 가족중심적인 여자노인이 노년기에 보다 문제가 많았다. 결혼만족이 정신건강의 측면과 직결된다고 볼 때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도 같은 맥락이라 사료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는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부분, 성역할을 측정하는 부분, 결혼만족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 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 연령, 교육 수준, 경제상태, 건강상태, 가족상황, 사회활동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 ② 성역할 태도 : 성역할 태도는 황경혜(1990)가 작성한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그렇다(1점)'에서 '그렇지 않다(3점)'의 3개의 응답범주를 갖는 Likert형의 척도로 구성하였는데 총점이 많을수록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총점이 낮을수록 더 전통적인 성역할을 나타낸다. 조사를 통해 본 연구에 나타난 성역할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다.
- ③ 결혼만족도 : 결혼만족도 척도는 Roach와 그의 동료(1981)가 작성한 결혼만족도 척도(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수정하여 사용한 전춘애(1994)의 결혼만족

도 척도를 이용하였다. 선행연구의 총 18문항의 척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각 문항과 전체 총점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못한 문항 3개가 제외되어 총 15문항이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되었다. 이렇게 구성된 결혼만족도 척도의 응답범주는 '그렇다'의 3점에서부터 '그렇지 않다'의 1점까지 3점 Likert 척도로 총점수(15점-45점) 중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의 정도가 높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결혼만족도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본연구에서 나타난 결혼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여자노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1996년 10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노인학을 수강받는 학생들에 의해 개별면접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된 질문지는 모두 200부였으나 응답이 부실한 14부를 제외한 186부를 본 연구를 위해 SAS PC<sup>+</s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표준편차, ANOVA,

Duncan-Tes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과정으로 잔차분석을 통한 Durbin-Watson계수를 조사한 결과 1.925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범위 0.024-0.2571)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은 70세 미만이 129명(69.3%), 70세 이상이 57명(30.7%)이었다. 교육수준은 국졸의 경우가 87명(46.8%), 무학의 경우가 84명(45.2%)이었으며 중졸이상이 15명(8.0%)이었다. 가족상황은 아들부부와 사는 노인의 경우가 74명(39.8%), 노부부만 사는 단독가구의 경우가 71명(38.1%), 딸 및 다른 가족원과 사는 노인의 경우가 34명(18.3%)이었으며 혼자 사는 노인은 7명(3.8%)이었다. 그들의 경제상태는 보통인 경우가 120명(64.5%)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노인이 35명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86)

변 인	집 단	빈 도(%)	변 인	집 단	빈 도(%)
연 령	60-69세	129(69.3)	경제 상태	어렵다	35(18.8)
	70세 이상	57(30.7)		그저그렇다	120(64.5)
교육 수준	무 학	84(45.2)		충분하다	31(16.7)
	국 졸	87(46.8)	사회활동의 정도	거의 안함	44(23.7)
	중졸 이상	15( 8.0)		한달에 1-4번	79(42.4)
건강 상태	나쁘다 그저 그렇다 좋 다	32(17.2) 99(53.2) 55(29.6)		가족 상황	한달에 5번이상
			혼자 거주		7( 3.8)
			노부부만		71(38.1)
			아들 부부와		74(39.8)
딸 부부와	8( 4.3)				
미혼자녀와	26(14.0)				

(18.8%),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는 노인이 31명 (16.7%) 이었다. 노인들의 활동 정도는 한달에 1-4번 정도의 활동을 하는 노인의 수가 79명 (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달에 5번 이상으로 활동이 빈번한 노인의 수는 63명(33.9%)이었고 거의 활동 없이 지내는 노인의 수는 44명 (23.7%)이었다.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수가 99명(5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강이 좋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경우는 55명(29.6%), '나쁘다'라고 응답한 노인의 수는 32명(17.2%)이었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연구문제의 분석

#### 1) 연구문제 1의 분석: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인 경향은 <표 2>와 같다. 표에서와 같이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의 점수는 16.4점(최대값 : 24점, 최소값 : 8점)으로 중앙치인 16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전통과 근대의 혼합형적인 성역할 태도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시기에 조사한 남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의 점수인 14.2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근대적인 사고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의 대부분이(서동인, 1985; 이정연, 1982; 이형실·옥선화, 1985; 최규련, 1984; Tom도, 1978)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평등한 성역할을 지향한다고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의 정도는 31.6점 (최대값 : 45점, 최소값 : 15점)으로 중앙치인

30점보다 약간 더 높게 나타나 결혼만족의 정도는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조사에서 남자노인이 보였던 33.9점 보다는 낮아 남자노인보다는 결혼만족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 역시 남편의 결혼만족이 부인의 결혼만족보다 높다는 연구들(이옥진, 1982; 정용재, 1985; 조성욱·신효식, 1987)과 일치한다.

<표 2>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의 일반적 경향

구 분		여자노인(N=186)	
		N (%)	M SD
성역할태도	근대적	60(32.3)	16.4(3.31)
	근대+전통	66(35.5)	
	전통적	60(32.3)	
결혼만족도	상	53(28.5)	31.6(5.53)
	중	78(41.9)	
	하	55(29.6)	

하 :  $M-SD/2 < \text{중} < M+SD/2$  : 상

#### 2) 연구문제 2의 분석 : 여자노인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는 교육수준( $F(3.06)=6.86, p<.001$ ), 건강상태( $F(3.06)=4.64, p<.01$ ), 경제상태( $F(3.06)=3.81, p<.05$ )에 따라 각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졸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근대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들(박숙자, 1978; 박태은, 1983; 최규련, 1984)과 일치한다.

<표 4>는 여자노인의 배경변인과 성역할태도에 따른 결혼만족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와 같이 여자노인의 결혼만족의 정도는 사

<표 3> 여자노인의 배경변인에 따른 성역할 태도

변인		여자노인(N=186)				변인		여자노인(N=186)			
		N	M	F(t)	Duncan			N	M	F(t)	Duncan
연령	60 - 69세	129	16.6	2.07	A	사회활동의 정도	거의 안함	44	15.9		A
	70세 이상	57	15.9		A		1달에 1-4번	79	16.5	0.67	A
							1달에 5번이상	63	16.5		A
교육수준	무학	84	15.6		A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35	15.1		A
	국졸	87	16.8	6.86***	A		보통이다	120	16.6	3.81*	B
	중졸이상	15	18.3		B		충분하다	31	16.8		B
가족상황	혼자 거주	7	12.3		A	건강상태	나쁘다	32	16.6		A
	노부부만	71	17.3		C		그저 그렇다	99	15.8	4.64***	A
	아들부부와	74	16.1	4.01**	BC		좋다	55	17.3		B
	딸부부와	8	14.3		AB						
	미혼자녀외	26	16.5		BC						

\* P<.05 \*\* P<.01 \*\*\* P<.001

<표 4> 배경변인과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변인 집단		여자노인 (N=186)				변인 집단		여자노인 (N=186)				
		N	M	F(t)	Duncan			N	M	F(t)	Duncan	
연령	60-69세	129	32.0	4.03*	A	사회활동의 정도	거의 안함	44	27.8		A	
	70세 이상	57	30.6		B		1달에 1-4번	79	32.8	19.81***	B	
							1달에5번이상	63	32.7		B	
교육수준	무학	84	30.5		A	경제상태	매우 어렵다	35	30.8		A	
	국졸	87	32.3	4.22**	B		보통이다	120	30.8	13.97***	A	
	중졸이상	15	33.3		B		충분하다	31	35.5		B	
가족상황	혼자거주	7	32.9		A	건강상태	나쁘다	32	31.4		A	
	노부부만	71	31.9		A		그저그렇다	99	30.5	8.24***	A	
	아들부부와	74	31.6	0.69	A		좋다	55	33.6		B	
	딸부부와	8	31.5		A		성역할 태도	전통	60	30.6		A
	미혼자녀외	26	30.3		A			전통+근대	66	31.2	1.17	A
					근대	60	32.0		A			

\*\* P<.01 \*\*\* P<.001

회활동의 정도(F(7.57)=19.81, p<.001), 경제상태(F(7.57)=13.97, p<.001), 건강상태(F(7.57)=8.24, p<.001), 교육수준(F(7.57)=4.22, p<.01), 연령(F(7.57)=4.03, p<.05)에 따라 각 집단 간에 유의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활동의 정도가 1달에 1-4번 이상으로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충분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국졸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연령이 70세 미만인 집단이 70세 이상인 집단보다 부부 적응의 정도가 높았다. 사회참여가 많을 때 결혼 만족의 정도가 높음은 친구, 이웃과의 활동, 지역 사회의 집단활동, 여가활동등의 사회참여가 개인에게 효율감을 제공하며 노화과정의 부정적인 생활측면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된 여자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지향적인 역할을 수행해

은 남자노인에 비하여 사회참여는 노후생활적응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박경란, 1988).

3) 연구문제 3의 분석 : 여자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성역할태도와 배경 변인의 영향력

<표 5>와 같이 여자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과 성역할태도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사회활동의 정도(0.25), 경제상태(0.18), 교육수준(0.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9%이었다. 즉 사회활동의 정도가 많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의 정도가 높았다. 본 결과는 여자인들은 남자노인들과는 달리 친구들과 자주 접촉·활동할수록, 이웃과 자주 만나 활동할수록 그리고 자발적 조직체에의 활동빈도가 클수록 만족한 생을 보낸다는 연구결과(박경란, 1988; 홍순혜, 1984)와 일치한다.

<표 5> 여자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변인 집단	여자인(N=186)		
	B	$\beta$	Partial R <sup>2</sup> (Step)
사회활동의 정도	1.85	0.25***	0.09 (1)
경제 상태	1.69	0.18**	0.06 (2)
교육 수준	0.75	0.08*	0.04 (3)
회귀 상수	1.19		
R <sup>2</sup>	0.19		
F	2.95**		

\*\* P<.01, \*\*\* P<.001

그러나 여자인의 결혼만족에 대한 성역할태도의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자인들의 결혼만족도는 노년에 변화를 맞게 되는 성역할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자에 의한 같은 시기의 조사에서 남자노인의 경우 결혼만족의 정도에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결국 부인들이 노후에 갖게 되는 양성성으로의 변화가 부부적응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이 갖는 성역할 태도보다는 타변인(사회활동의 정도, 경제상태, 교육수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인구학적 변수와 생활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성역할 태도가 여자인의 결혼만족의 정도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 예측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활만족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의 질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자인의 성역할 태도의 점수는 16.4점으로 중앙치인 16점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전통과 근대의 혼합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여자인의 결혼만족의 정도는 31.6점으로 중앙치인 30점보다 높아 결혼만족의 정도는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자인의 성역할 태도는 교육수준(F(3.06)=6.86, p<.001), 건강상태(F(3.06)=4.64, p<.01), 경제상태(F(3.06)=3.81, p<.05)에 따라 각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즉 중졸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보통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근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여자인의 결혼만족의 정도는 사회활동의 정도(F(7.57)=19.81, p<.001), 경제상태(F(7.57)=13.97, p<.001), 건강상태(F(7.57)=8.24, p<.001), 교육수준(F(7.57)=4.22, p<.01), 연령(F(7.57)=4.03, p<.05)에 따라 각 집단 간에 유의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사회활동의 정도가 1달에 1-4번 이상으로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경제상태가 충분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보다, 건강상태가 좋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교육수준이 국졸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연령이 70세 미만인 집단이 70세 이상인 집단보다 결혼만족의 정도가 높았다.

세째, 여자노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경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회활동의 정도(0.25), 경제상태(0.18), 교육수준(0.08)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19%이었다. 즉 사회활동의 정도가 많을수록,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의 정도가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여자노인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조사 전의 예측과는 달리 여자노인의 결혼만족의 정도는 노인이 갖는 성역할 태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환경변인인 사회활동의 정도, 경제 상태, 교육의 정도에 의하여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노모들이 종교적 또는 지역적 활동에 참여하여 정서적 자립을 누릴 수 있는 방향전환은 중요하며 노후적응에 필수적 요건인 경제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겨진다.

둘째, 부부중심의 노후기간이 길어지고 노인의 은퇴로 인한 삶의 패턴이 변화됨에 따른 부부간의 새로운 역할 창조로 동료적인 부부관계를 갖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면 한다. 이를 위해 노인 자신은 물론 노인의 부부관계에 관심을 갖는 가족 및 사회의 분위기는 필요하며 적합한 사회공적개입으로 노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다양한 교육, 상담 등을 통한 노인을 위한 복지 제도의 운영은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의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노인기에 적합한 표준화된 척도의 개발은 시급하며 생활주기에 따른 성역할 태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종단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하겠다.

## 참고문헌

1. 강은령(1988). 부부의 결혼에 관한 연구 - 취업부부/비취업부부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 고현선(1994). 부부의 자이분화가 부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3. 기승주(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김명자(1985). 가족관계에 대한 부부의 가치의식과 결혼만족에 관한 연구. 숙대아세아 연구 24.
5.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서울
6. 박경란(1988). 노년여성의 생활만족도 연구 - 장남부부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고려대 박사학위 논문.
7. 박숙자(1978). 전통적 성역할 규범에 대한 태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8. 박태온(1983).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 도시주부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39-150.
9. 서동인(1985). 취업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변수 고찰.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0. 서병숙(1991). 노인연구. 교문사, 서울
11. 양현아(1986). 부부간의 결혼 실재 상이성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2. 유영주(1979). 한국도시 가족의 부부간의 만족도 연구. 서울대 가정대학 논문집 4:1-13.

13. 이동원(1978). 한국의 가정생활과 여성의 역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4. 이미숙(1985). 자녀의 성, 수와 주부의 성역할 태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51-170.
15. 이옥진(1982). 가족환경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6.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7. 이형실, 옥선화(1985). 남편과 부인의 성역할 태도와 의사결정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1-43.
18. 전춘애(1994). 부부의 자이분화 수준과 출생 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 정용재(1985).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와의 상관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 조성옥, 신효식(1987). 결혼만족도와 자아개념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1):177-200.
21. 조옥희(1991). 홀로 된 여자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 논문.
22. 최구련(1984). 부부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91-102
23.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84). 한국노인의 생활의식 구조 : 한국, 일본, 태국, 미국, 영국, 프랑스 6개국 노인 의식구조 비교조사.
24. 황경혜(1990). 남편의 가정내 성역할태도와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5.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26. Albrech, S.L.(1979). Correlates of marital happiness among the marrie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4):857-867.
27. Atchley, R.C.(1976). Selected social and psych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in later life. *J. of Gerontology* 31(2):204-211.
28. Bem, S.(1975). Sex-role adaptability : One consequence of psychological androgyny.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4).
29. Bowen, G.L.(1989). Merital sex role incongruence and marital adjustment. *J. of Family Issue* 10(3):409-419.
30. Bowen, G.R., Orthner, D.K.(1983). Sex-role congruency and merital qualit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1):223-230.
31. Brogan, D., Kutner, W.G.(1976). Measuring sex-role orientation : A normative approach.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31-40.
32. Hefner, R., Rebecca, M., Oleshan, S.B.(1975). Development of sex-role transcendence. *Human Development*, 18.
33. Gutman(1976). Individual adaptation in the middle years : Developmental issues in the masculine mid-life crisis. *J. of Geriatric Psychiatry* 9:41-59.
34. Hicks, M.W., Platt, M.(1970).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ixt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4):553-573.
35. Lee, G.R.(1988). Marital intimacy among older persons. *J. of Family Issue* 9(2):273-284.
36. Nordlund, A.(1978). Attitudes,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ternational J. of Sociology of the Family* 8:115-117.
37. Osmond, M.W., Martin, P.Y.(1975). Sex and sexism : A comparison of male and

- female sex-role attitud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744-758.
38. Peterson, J.A., B. Payne(1975). Love in the later years. New York : Association Press.
39. Pineo, P.C.(1961). Disenchantment in the later years of marriage. *Marriage and Family Living* 23:3-11.
40. Rollins, B.C., K.L. Cannon(1974).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 A reevalu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271-282.
41. Scanzoni, J.(1975). Sex roles, economic factors and marital solidarity in black and white marri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130-144.
42. Scanzoni, J., Fox, G.L.(1980). Sex-roles, family and society : The seventies and beyond.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743-756.
43. Sinnott, J.D.(1982). Correlates of sex-roles of older adults. *J. of Gerontology* 37(5).
44. Tomeh, A.K.(1978). Sex role orient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341-354.